

■ 지역정보화 이야기

이제 우리나라도 컴퓨터가 도입되어 일반화된지도 어언 20여년이 넘었다. “정보화”라는 단어도 이제는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또한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정보화” 관련 보도기사가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정보화”에 대한 그동안의 변화 또는 발전과정을 뒤돌아 보면 컴퓨터가 기업의 내부 업무처리에 도입 이용되기 시작해서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복잡성에 적응하기 위하여 확대 보급되어 왔다. 이와같은 적용업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분야의 이용기술 또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이 컴퓨터와 통신은 우리들의 주변 즉, 생산현장, 판매현장, 서비스현장, 행정업무 등 어느 한 분야도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날로 그 이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 일반국민이 지나쳐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역정보화”이다. 그것은 많은 기술발전과 이용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밀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또한 그런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필자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과문탓일까?

'93년에는 체신부에서 지역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金正源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사업부장

자 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소, 대학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전국 8개 지역에 지역정보화 공공DB구축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옆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느낌을 적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욕구나 지방공공단체의 의지 등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정보격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셋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확보상의 문제이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성장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의 하나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지방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정보화에 나서야겠으며, 둘째, 국가에서는 소요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각종 기금의 확보, 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재정지원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겠으며, 셋째, 연구소 등에서는 마인드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넷째, 정보통신분야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공공단체와 공동으로 지역공동체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주민생활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